4대 종교, 자살 유가족 일상 회복 돕는다

불교상담개발원–서울시자살예방센터 '살사프로젝트'

8월 17일, 4대 종교 '열린포럼'
위로법회 · 명상프로그램 소개
죽음 현실 인식 위한 방안 제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자살 유가족들의 돌봄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서울시와 4대 종교가 '살자, 사랑하자'를 외치며 함께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은 8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23년 살사프로젝트 '4대 종단과 함께하는 열린포럼'을 개최했다. '살사 프로젝트'는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의 줄임말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불교 · 원불교 · 천주교 · 개신교 4대 종교계가 협력하는 사업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과 (사)생명문화 라이프호프 조성돈 대표, 정경숙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센터장, 천주교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장 차바우나 신부가 강연자로 나서 종교별 유가족 대상 자살예방사업 활동을 공유했다.

선업 스님은 위로법회와 자조모임, 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비의전화 운영 등 유가족들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불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선업 스님은 "이번 열린포럼을 통해 현대인들의 행복한 삶과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종교계가 자살예방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사회의 정신건강 및 생명의 가치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전문기관과 함께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실천사업들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개신교의 유가족과 함께하는 훈훈한 글쓰기와 자살예방 강사 양성, 원불교의 생명존중학교 운영 등 각 종교 특색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이 소개됐다.



자살 유가족을 돕기 위해 서울시와 불교를 비롯한 4대 종교계가 함께 마련한 열린포럼.

이범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이날 '자살유가족의 박탈된 애도와 돌봄'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자살 유족의 상황과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감각적 반응과 죽음 현실 인식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범수 교수는 "자살유족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서 통찰은 연기, 집착, 무상으로 인도하는 죽음 수용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통찰을 통해 죽음 위기에서 겪는 혼란의 우여곡절을 새로운 생명의 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지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팀장은 '서울시 자살유족 서비스'에서 유가족 애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설명했다. 류지수 팀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행정절차와 법률서비스, 일시 주거 서비스 등 유족긴급서비스를 통해 부담감과 트라우마 완화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자살유가족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적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남겨진 분들 서로 마음을 나눠요' '넌 혼자가 아니야. 힘내자 우리 함께' '자살 아닌 살자! 살자! 꼭 살자!' 등 유가족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포럼에 앞서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이번 포럼은 서울시와 4대 종교가 함께 현대인들의 행복한 삶과 생명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종교계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해 추구할 내용과 의미,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라면서 "포럼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신건강 및 생명의 가치를 확립해 자살예방을 향해 한 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2015년부터 서울시와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와 함께 '살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자살 방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불청 주관 IBYE대회 연기 결정

내년 5~6월, 경북 개최 · 프로그램은 유지

잼버리 여파로 부정적 여론
참가자들 취소 의사 밝혀와

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장 장정화)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3박4일간 경북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제불교청소년교환캠프(IBYE)를 연기하기로 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미흡한 운영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대불청이 준비하던 IBYE도 타격을 입은 것.

대불청은 8월 14일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WFBY) 지도부와의 논의 끝에 대회 연기를 발 빠르게 결정했다. 이는 앞서 새만금에서 대규모로 열린 잼버리대회에서 열사병과 감염병 등을 비롯해 주최 측의 운영 미숙 논란이 불거진 데 따라 IBYE 참가희망자도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WFBY)는 올해 IBYE를 연기하고, 내년 2024년 5~6월에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불청은 현재 전국 사찰과 단체에 IBYE 행사 연기 소식을 안내하고 있다.

행사 일정은 변경되지만 불국사를 비롯해 의성 고운사, 예천 국제진호양궁장, 구미 신라불교초전지 등 경상북도 일대를 주 무대로 한 기존 계획은 그대로 이어진다. 장정화 대불청 중앙회장은 "남은 기간 행사 내실을 다져 보다 좋은 모습으로 전 세계 청년불자들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대불청은 또한 이미 발권 준비를 마친 여러 국가 참가자들이 비행기표를 환불하지 못해 한국을 방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해와 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대불청은 이웃나라 청년불자들을 위해 국내 교통편과 숙박 등 관광 편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불청에 따르면 이번 IBYE 참가 신청을 마친 전 세계 청년불자 가운데 60여 명은 행사 연기와 무관하게 방한 입장을 전했다.

장정화 회장은 "불가피한 대회 연기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청년불자들이 없도록 대불청과 각 종단, 스님, 단체에서 관광을 지원해 한국불교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윤재웅 동국대 총장과 학생들이 합장 인사를 하고 있다.

동국대 "이제 매달 11일은 합장DAY"

8월 11일 교내 정각원서
첫 합장데이 캠페인 행사
교내 합장 인사 생활화로
동국 건학이념 구현 추진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매달 11일을 합장데이로 정하고 합장 인사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건학이념 구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동국대는 8월 11일 교내 정각원 법당에서 합장데이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합장데이'는 지난 5월 윤재웅 총장이 발표한 '동국 Meta Plan 120'의 중심 추진과제 중 건학이념 교육과 전법생활화를 위한 캠페인이다. 합장인사를 동국인의 공식 일상 인사법으로 적극 도입하고 확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매달 11일을 합장데이로 선포했다.

이날 행사는 5월 합장데이 선포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행사로 정각원에서 합장인사의 의미를 공유했다. 또한, 참석자 모두 상월결사 108원력문에 맞춰 108배 정진을 이어갔다.

정각원장 진명 스님은 "합장을 하는 이유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의미이자 인사를 하는 당신을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존중하겠다는 의미 역시 지니고 있다"며 "앞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교내에서 합장인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국대는 앞으로도 매달 11일 합장데이 행사를 개최해 교내 구성원들의 합장인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27회 만해대상 시상식
더 프라미스 등 수상

8월 12일 인제 내린천센터서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공영대)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제27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상기 인제군수 등이 참석했다.

만해대상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생명 · 평화 · 겨레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평화 △실천 △문예 세 부문에 걸쳐 빼어난 업적을 거둔 인물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올해 만해평화대상은 우크라이나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우크라이나'에게 돌아갔다. 실천대상은 불교계 국제구호NGO '더프라미스'와 곽병은 의료복지협동조합 밝음의원 원장이 받았다. 문예대상은 천양희 시인과 前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집행위원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한 '세이브 우크라이나' 미콜라 쿨레바 대표는 "전쟁에서 어린이들을 구출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 상을 통해 여러분의 지지를 느끼고 있다. 우리가 함께 공동의 목표인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실천대상 수상자인 '더 프라미스' 이사장 묘장 스님은 "이렇게 큰 상을 주신 데 대한 보답차원에서라도 우리 단체가 직원들과 함께 해외 구호활동, 국내 구호활동에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고통 받는 이들의 옆에 가장 빠르게 서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만해실천대상 공동수상자인 곽병은 원장은 "수상을 하고 보니 그동안 실천한 일들을 인정 받는 것 같아 기쁜 마음도 있지만, 돌아보면 부끄럽기도 하다"고 전했다.

만해문예대상을 수상한 천양희 시인은 "모두를 위한 시를 쓰겠다"며 "세상의 놀라움과 새로움을 전하기 위해 등대 불빛 같은 만해 스님의 정신을 따라 마음의 절 한 채를 짓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전국 최초 최고 명문 불자 교육기관]
빛나는 승려의 길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 명상지도사
부산불교교육대학 하반기 신입생 모집
| 합동입학식 | 2023년 9월 13일(수) 오후 7시
행복선 명상 (목, 6개월, 정원60명)
■ 일상 스트레스의 해소와 대처법 습득을 통해 삶을 윤택하게 하는 힐링 치유프로그램
기초교리학과 (수, 6개월)
■ 학장 평천 범혜스님(한국불교 대강백 월운스님 전강제자) 불교 기초 핵심교리를 알기쉽고 체계적으로 설명
불교문화학과 (6개월)
■ 불교문화 포교사(금) ■ 불교문화 전문지도사(월)
부동산융합풍수학과 (화, 6개월)
■ 여해스님(한국풍수최고봉 이산 장태상 선생 수제자)
※ 각 학과별 매주 1회 오후7시~9시 강의
| 개강일 | 2023년 9월 7일(목) 오후 3시 (정원 30명) | 강의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까지 (6개월)
| 메디테라피스트 | 김경숙 (사)싱잉볼 치유의 소리 대표 | 자격증 | 붓다볼 명상지도사 (민간자격 등록 2022-001823)
증명 : 서해 흥교 대종사 교육원장 : 심산스님 운영위원장 : 자인스님 후원회장 : 선보공업(주) 최금식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빌딩 5층 (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051-711-0700
부산진경찰서 온병원 부암역 서면역 롯데백화점 (신동아빌딩 5층)